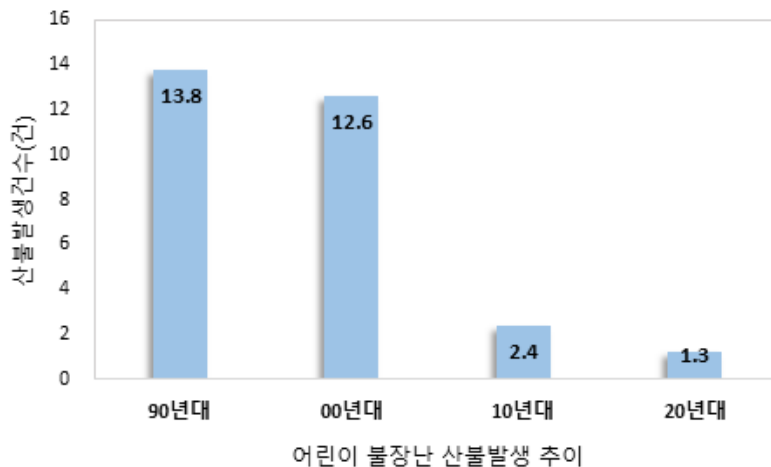


## 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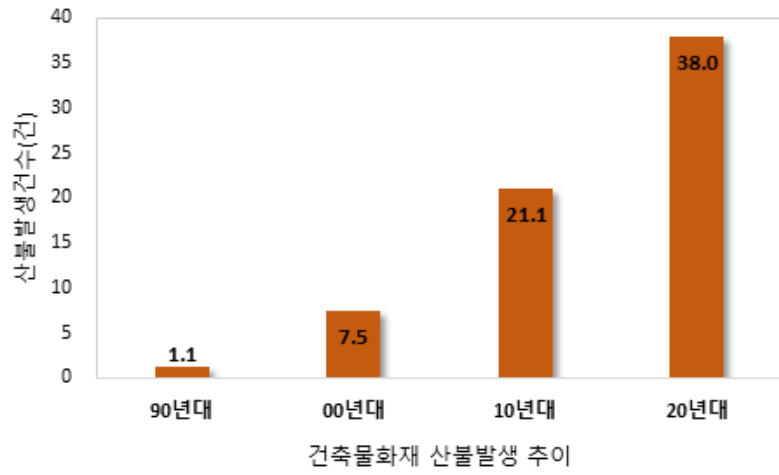
## 산불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최근 변하고 있나요?

**A** 과거에 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어린이 불장난이 농·산촌 인구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숲세권’, ‘숲복지’가 떠오르며 산림인접지가 개발되고, 산림 주변으로 주거공간이 확대되면서 숲 가까이 위치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불이 산에 옮겨붙는 형태로 산불의 원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건축물과 산림의 거리가 가까워져 주택화재나 공장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산림인근 펜션에서 발생하여 161ha의 산림을 태운 2018년 2월 삼척시 노곡면 산불, 주택화재 비화로 123ha의 산림을 태운 2020년 5월 1일 고성군 토성면 산불 모두 산림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대형산불로 확산된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의 문제와 피해규모가 커지게 되어, 내화수림 조성이나 안전 공간 확보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2024년 산불 제대로 알기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